

韓國 古代 加髻의 機能과 意味

임 린* · 김 은 정⁺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The Functions and Meanings of Korea Ancient Gagye(加髻)

Lynn Yim* · Eun-Jung Kim⁺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8. 6, 심사(수정)일: 2009. 2. 19, 게재확정일: 2009. 2. 20)

ABSTRACT

Korea Ancient Gagye in Clothing history has the following meanings with ceremonial, social, and aesthetic aspects, related to symbolism of its formality and procedures, flexibility about social aspects, and clothing beauty.

First, Gagye must be worn in formal ceremonies with its clothes. Different Gagye in different time and place means the symbolism of its formality and ceremonies. Gagye played a big role as a means to carry out national ceremonies in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hina.

Second, Korea Ancient Gagye had been worn in every class irrespective of social status. Because it could be worn reflecting personal preferences even in old communities. Additionally Gagye had flexibility to reflect the historical aspects and improved various Gagye types reflecting Buddhism and practical science. So Gagye becomes significant sharing the common value with Korea Clothing culture.

Third, Korea Ancient Gagye developed aesthetic spirit concerning beauty of Clothing. In the Age of the Three States, Clothing and Gagye types kept balanced and made good harmony. Gagye had gotten little exaggerated and expanded and become changed into loaded hair type.

Key words: Gagye(가계, 加髻), ceremonial function(의례적 기능), social function(사회적 기능), aesthetic function(미적 기능), symbolism(상징성), flexibility(유연성), beauty of clothing(복식미)

I. 서론

가계(加髻)는 본인의 두발 이외에 다른 소재를 더하여 만든 계양(髻樣)이다. 이렇게 두발에 부차적인 재료를 더하는 것은 수식과 장식을 위한 목적도 있으나, 전통사회에서는 신분과 계층에 맞는 위엄과 권위, 격식과 형식을 갖추기 위한 이유가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즉, 가계는 원시시대 발생단계에서부터 단순한 수식과 미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개인의 장식품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따라 형성되고, 격식과 의례, 사회상을 반영하여 당시대의 복식미와 조화를 이루는 복식요소로 발전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가계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 성행 하였던 가채(加髻)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가계는 단순한 머리모양이나 장식으로 간주되면서 구체적인 기능과 가치를 밝히는데 미흡함을 보였다. 이는 가계가 다른 복식에 비해 문헌의 기록이 현저하게 조선시대로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이전 가계에 대한 실증적 유물이나 시각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라는 용어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가계를 두식이나 관모의 일부분으로 간주해 온 복식연구의 관행으로 인해 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의 시원이 되는 고대 가계의 기능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초기국가 형성기인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까지 착용된 가계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한국 가계는 상고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가계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계의 원류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한국 가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나 자료의 부족은 한국 가계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 안주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지 못했던 점도 있다.

이에 복식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남자의 관모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였던 가계의 기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복식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고대 가계가 복식사적 측면에서 수행하였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는 여자복식에서 가계의 중

요성을 부각시키고 가계가 갖는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시발점으로 복식사에서 가계에 대한 범주와 개념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II. 가계의 개념과 유형

1. 가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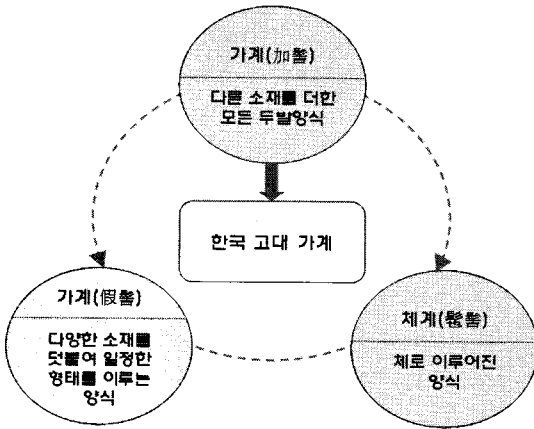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계(加髻)는 개인의 두발에 다른 소재를 부가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한 두발양식을 뜻한다. 여기에서 계(髻)란 머리를 맺는 결발양식(結髮樣式)¹⁾으로 주로 상투²⁾를 의미하며, 이때의 결발(結髮)은 본인의 두발만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두발에 다른 소재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가계(加髻)는 후자에 속하는 모든 두발양식이다.

한국 고대 가계는 소재의 사용이 다양하였다. 특히 가계(加髻)에 사용된 소재는 관모, 머리장식, 쓰개의 분류에서 혼선이 있는 건귀(巾櫃), 족두리, 화관, 차액(遮額)과 가수(假首), 가채(加髻), 변체(辨髻), 고계(高髻), 가발(假髮)과 같은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정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의 두발(頭髮), 흑사(黑絲) 뿐만 아니라, 지질(紙質), 목재(木材), 직물(織物)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가계(加髻)는 가계(假髻)³⁾로, 체(髻)만으로 형태를 만들었던 가계(加髻)는 체계(髻髻)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계와 체계는 소재의 차이에 따라 착용방법도 다르다. 대부분의 가계는 기본적인 형태의 틀이 있어 가계를 만드는 규정과 형식이 있다. 탈부착이 가능하여 따로 보관하고 의례나 행사, 외출이나 머리장식에 사용한다. 반면 체계는 체를 곁들여 형태를 만들어 가는 만큼 일정한 틀이 없고 머리에 엮거나 높게 올려 개성을 보인다.

따라서 가계는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인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에서 볼 수 있는 환계형 양식, 고려시대 불화에서 볼 수 있으며 이어 조선시대 정착된 띠구지를 엮는 거두미, 어염족두리와 함께 착용되는 어유미, 대수, 삼국시대 건귀, 고려, 조선시대의 화관, 족두리, 차액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⁴⁾ 또한 체

계는 상고시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애용되었던 고유한 엮은머리 양식으로 체(髻)라는 일정한 소재를 이용하여 개인의 미적 성향에 따라 두발에 자유롭게 부착하였던 양식이라 할 수 있다.⁵⁾



<그림 1> 가계의 개념

2. 한국 고대 가계의 유형

초기의 가계는 두발에 간단한 장식이나 타인의 두발을 더한 양식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 중국에서 여성의 두발이 검고 풍성한 것을 미의 기준으로 여겼기 때문에 머리술이 적거나 길이가 짧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발이나 끈을 이용하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⁶⁾

한국 고대 가계의 초기양식은 '단군이 백성에게 편발(編髮)과 개수(蓋首)를 가르쳤으며, 군신, 남녀, 음식, 거처의 제도가 이때에 비롯하였다.'⁷⁾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대 가계는 주로 중국은(殷)의 양식을 따라⁸⁾ 가발로 머리에 들렸으며,⁹⁾ 또는 말갈기처럼 만들어 오른쪽 어깨에 드리우기도 하였다.¹⁰⁾ 『晉書』에서는 '영주(纓珠)를 귀히 여겨 옷에 매달거나 머리를 장식하고 귀로 늘어뜨린다.'¹¹⁾고 하여 가발 뿐만 아니라 장식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 주변국인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유물에서는 변발(辮髮) 형태의 두발 끝단에 가발(假髮)과 끈을 연결한 것을 볼 수 있어 가계(加髻)의 초기형태¹²⁾를 짐작해 볼 수 있다. 『海東繹史』에서는 '삼한(三韓)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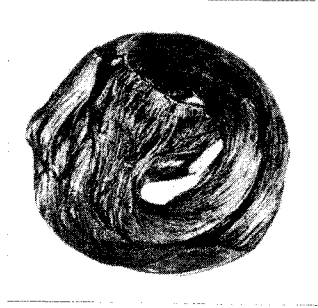
부인은 반발(盤髮)하여 장식하고, 미혼녀는 말아서 뒤에 드리웠다. 그러나 모두 아계(鴉髻)를 만들며, 나머지는 아래로 드리운다.'¹³⁾고 하였다. 아계(鴉髻)는 까마귀가 날개를 펼쳐 날고자 하는 형상을 나타내는 두발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아계(鴉髻)는 아계(丫髻)로 바뀌 쓰이기도 하는데, 아계(鴉髻)가 까마귀 날개에 비유되었다면, 아계(丫髻)는 좌우 한 개씩 가지가 뻗쳐 있는 나뭇가지 형태의 두발양식으로 볼 수 있다.¹⁴⁾ 이들은 두발을 좌우로 갈라 양쪽 끝을 위로 붙잡아 매어 만든 형태¹⁵⁾라는 점에서 동일한 두발양식으로 후대에 아계(鴉髻)는 어린 아이나 특수계층의 두발양식으로 성행하여 계집아이나 계집종을 대변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나,¹⁶⁾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에는 성인도 아계를 하였다라는 기록을 접할 수 있다.¹⁷⁾ 한국에서는 위의 『海東繹史』 기록처럼 부녀자가 아계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아계는 상고시대 체(髻)를 연결하는 단순한 가계로부터 발전한 초기형태의 가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형태였던 고대 가계는 시대가 흐르고, 사회계층과 고대국가의 틀을 완성해 가면서 신분과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周禮』의 기록에서는 왕후가 사용하였던 가계인 부편차의 기록이 있다.

왕후(王后)의 수복(首服)에는 부편차(副編次)가 있다. 부는 덮는다(覆)는 말로 머리를 덮어 수식하며 지금의 보요(步搖)와 같고, 왕을 따라 제사 지낼 때 착용한다. 편(編)은 머리를 땡아 만든 것으로 지금의 가계(假髻)와 같으며, 차(次)는 다리(髮髻)로서 머리털의 길고 짧은 것을 간추려 만든 것인데 반드시 잇대어 길게 하고 왕을 배알할 때나 왕후의 연거(燕居)시에 착용한다.¹⁸⁾

실질적인 유물은 한대(漢代) 마왕퇴1호묘(馬王推一號墓)에서 출토되었는데, <그림 2>¹⁹⁾은 출토유물 중 운형의 작은 함에 들어 있던 가발(假髮)로 왕우청(王宇淸)은 이것을 『周禮』에 기록된 왕후의 수식인 부편차(副編次) 중 '부(副 또는 副貳)'에 해당하는 가계로 보았다.²⁰⁾

이러한 부편차(副編次)는 『朝鮮王朝實錄』²¹⁾과 『星湖僿說』²²⁾ 등에서 우리나라 왕실의 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고조선이 중국의



〈그림 2〉 부(副)
中國歷代婦女裝飾(1988), p. 16.



〈그림 3〉 환계형 가계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39.



〈그림 4〉 환계형 가계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39.



〈그림 5〉 건귀
한국미술전집4(1980),
p. 71.



〈그림 6〉 고계형 체계
고구려 고분벽화
(1986), p. 79.



〈그림 7〉 고계형 체계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1999), p. 111.

연(燕), 제(齊)와 교역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 가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후 삼국시대의 가계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환계형 가계는 〈그림 3〉²³⁾에 제시된 안악3호분과 〈그림 4〉²⁴⁾에 제시된 덕흥리고분 벽화에서 나타난다. 중앙에 높게 머리를 묶어 세우고 등근테를 이용하여 양쪽으로 펼쳐 놓은 형태를 띤다. 외형적 형태만으로는 조선시대 궁중양식인 거두미(巨頭味)를 연상하게 한다. 건귀은 〈그림 5〉²⁵⁾의 각저총과 삼실총 등에서 볼 수 있다. 직물로 만들어졌으며, 계양(髻樣)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리를 완전히 덮는 복계식(覆髻式)으로 앞부분이 삼각형을 이룬 변(弁)의 형상이다. 『說文解字』²⁶⁾에서는 꺾(𦘒)을 부인의 머리장식이라고 하였고, 다시 꺾(𦘒)은 본래 꺾(齒)자로²⁷⁾ 이를 『釋名』²⁸⁾에서는 머리를 덮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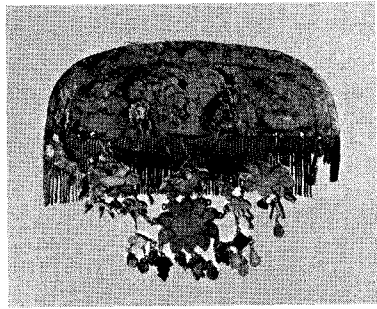
이라고 하여 건귀은 두발을 덮어 쓰는 머리장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주신, 고춘명²⁹⁾은 건귀을 가계(假髻)로 보았다.

또한 〈그림 6〉³⁰⁾의 감신총이나 〈그림 7〉³¹⁾의 신라토우에서 두발을 모두 잡아 높게 빚어 올려 정수리에서 걸발한 고계형 체계와 〈그림 8〉³²⁾의 엷은머리형 체계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고대 가계의 장식방법으로 빚을 꼽았다. 흥덕왕 복식금제에서는 신분에 따라 소(梳)와 채(釵)의 재료나 장식방법의 사용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釋名』을 통해 살펴보면, 소(梳)는 이(齒)가 성긴 빚으로³³⁾ 〈그림 9〉³⁴⁾와 같이 화려하게 만들어져 머리를 고정하거나 장식하는 역할을 하였고, 빚은 곧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주변국인 중국 당대(唐代)는 부녀자가 빚을 꽂는 것을 좋아하여 최고의



〈그림 8〉 얽머리형 체계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p.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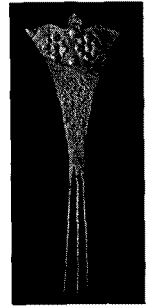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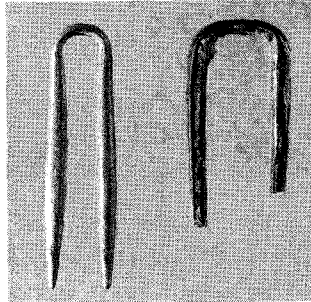
〈그림 9〉 빗 (통일신라)
한국미술전집2(1973),
p. 130.



〈그림 10〉 빗을 꽂은 모습 《搗練圖》(唐)
The ARTS of CHINA(2002),
p. 139.



〈그림 11〉 채 (고구려)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2000), pp.
270-272.



〈그림 12〉 채 (백제)
한국미술전집2
(1973), p. 98.

경지에 이르렀고, 〈그림10〉³⁵⁾과 같이 회화를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다.³⁶⁾ 따라서 흥덕왕 복식금제의 소(梳)의 규제는 한국 고대 가계의 화려함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채(釵)는 『說文解字』에 계(笄)에 속한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³⁷⁾ 잠(簪)과 더불어 두 발을 고정하거나 장식할 때 사용되었던 비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채(釵)는 〈그림 11〉³⁸⁾과 같이 ㄱ형 몸체에 특별한 장식이 없는 형태와 끝부분이 두 개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채두(釵頭)에 장식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³⁹⁾ 채(釵)는 주로 머리 형태를 고정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했지만, 장식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채두(釵頭)를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하였다. 한국 고대 가계가 발달함에 따라 채(釵)의 장식기능이 강조되면서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백제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채(釵)의 길이

는 18.4cm나 되어 〈그림 12〉⁴⁰⁾와 같은 채(釵)를 꽂을 수 있는 가계의 풍성함과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다.

Ⅲ. 한국 고대 가계의 기능

한국 고대 가계는 상황과 역할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하였다. 당대의 요구에 따라 의례적 기능이 강화되기도 하였으며,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의 본질적 욕구인 미의 추구가 가계의 소재와 형태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 고대 가계가 수행해 왔던 역할을 의례적, 사회적, 미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례적 기능

가계의 의례적 기능은 가계양식의 가장 중요한 발생동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星湖僿說』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옛날에는 오직 성장(盛裝)할 때(宗廟에 제사 지낼 때)만 이 가발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 외에는 왕후로부터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풍속에서 늘 쓰는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남의 머리칼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만 갖고도 알마든지 쓸 수 있었던 것이다.⁴¹⁾

이러한 기록은 가계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에는 의례적인 성격이 강조되었던 것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周禮』에서 부편차(副編次)를 설명할 때 제시하였던 것처럼 왕후의 경우도 왕과 함께 제사(祭祀)를 지낼 때만 가계를 착용하였다는 것은 당시 가계가 왕의 관모가 갖는 의례적 기능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대국가에서 제사는 신성하고 중요한 국가적 의식으로, 제사에서 왕이 착용하였던 관모에는 신(神)이 강림(降臨)하는 산이나 신사(神社)의 식물을 머리에 장식한다는 의미에서 금, 은으로 된 조화나 신의 매개자로서의 새 꼬리털을 삽식(插植)하였고,⁴²⁾ 왕후는 가계를 이용하여 성장을 하였다. 따라서 왕후의 가계는 왕의 관모와 비견될 정도로 의례적 성격이 강조되었고, 왕후가 맡는 의례적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에서 볼 수 있는 환계형 가계는 고분의 주인공 성장과 관모에 상응하는 의례성을 갖는다. 특히 안악3호분은 고분에서 발견된 묵서(墨書)의 표기년대(357)에 대한 해석에 따라 주인공이 전연(前燕)에서 망명한 동수(冬壽)라는 설과 고구려의 왕이라는 설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태이다. 이에 관해 『舊唐書』에서는 ‘복식을 보면, 오직 왕만이 오채로 된 옷을 입으며, 백라관을 쓰고, 흰가죽으로 만든 소대를 두른다. 관과 대는 모두 금으로 장식한다. 벼슬이 높은자는 청라관을 쓰고, 다음 계급은 비라관을 쓰는데, 두 개의 새깃을 꽂고, 금, 은으로 장식한다.’⁴³⁾고 기록하고 있어, 안악3호분이 고구려의 왕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주인공은 백라관을 쓰고,

여주인공은 이와 비견되는 가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덕흥리고분의 주인공은 청라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안악3호분의 주인공보다 계급이 낮은 것을 나타내며, 이에 여주인공은 안악3호분에 견주어 소규모의 환계형 가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또다른 가계인 건귀도 의례와 격식을 위해 착용되었다. 건귀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여성이 성장을 하거나 격식을 갖추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러 계층에서 외출을 하거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의례용 가계로 착용하였다.

2. 사회적 기능

가계의 사회적 기능이라 함은 가계가 혼인여부 표시, 시대의 미의식 반영, 시대상과 사조를 받아들여 표현하는 매개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먼저, 상고시대부터 여성의 두발양식은 개인의 미적욕구의 표현기능은 물론, 사회적 약속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두발양식으로 미혼녀와 기혼녀를 구분할 수 있었고, 특히 가계는 기혼녀만이 착용하여 가계만으로 혼인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다. 『隋書』에서는 두발양식이 미혼녀와 기혼녀를 식별할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결혼전에는 머리를 땀아 뒤로 드리우다가 시집을 가고 나서는 두갈래로 나누어 땀아 머리위에 엮는다.⁴⁴⁾

상고시대에 나타나는 아계(鴉髻)는 초기 가계형태로 기혼녀와 미혼녀의 구별없이 착용되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미혼녀, 어린아이나 특수계층의 두발양식으로 정착되면서 체를 더하는 경우가 없어졌다. 따라서 아계는 가계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신분이나 계층을 나타내는 사회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궁중생활을 보여주는 안악3호분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과 같이 기혼녀는 체를 더해 고계형 체계를 하거나 외출시에는 건귀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 가계의 사회적 기능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가계는 시대의 사조를 받아들이고 표현하

면서 사회성을 갖는다. 불교가 유입되었던 고구려 소수림왕(327년) 이후 축조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불상의 두발양식과 유사한 고계형 체계가 자주 나타난다. 한국 고대 가계 중 고계형 양식은 중국의 나계(螺髻)와 유사성을 보이는데, 나계는 간다라 불상조형의 두발양식과 같은 형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교와의 관련성은 불교가 변역을 이루었던 고려시대 체를 더해 거대해지는 경향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불교가 쇠퇴하자 고계형 가계가 함께 퇴조되는 양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3. 미적 기능

가계의 미적 기능은 여성의 미적 추구 본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전통사회에서 가계에 부여된 의례적, 사회적 기능은 여성의 미의식이 더해지면서 보다 다채로운 양상을 띤다. 이는 복식에 부여된 미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복식미를 보충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형태로 발달하였다.

한국 고대 가계의 시원은 의례적 성격이 농후하다 하더라도 짙은 흑발을 최고의 미로 간주한 것이나 두발을 좀 더 길고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체계를 발달시켰던 점은 가계의 미적 기능이 가계를 발달하게 하는데 일조하였음을 나타낸다. 여성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가계는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보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였으며, 이에 다양한 장신구와 수식품을 함께 발달시켰다. 상고시대 영주를 더해 장식을 하였던 기록은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안악3호분 여주인공은 환계 양쪽에 머리를 늘어뜨리는 장식을 하였고, 수지(樹支) 모양의 잠두(簪頭)를 가진 비녀, 붉은색의 건류(巾類)를 통해 미적 기능을 더하고 있다. 즉, 환계형 가계가 주는 위엄과 권위에 미적 기능을 더함으로써 여성의 가계가 갖는 독특한 양식을 연출하게 된다. 이는 당시 복식미와도 조화를 이루며, 풍성하고 수려한 복식은 가계에 그대로 이입(移入)되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규제와 비례의미를 보인다.

또한 한국 고대 가계의 미적 기능은 다양한 머리 수식품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가계에 빗을 꽂는 풍습이 성행하여 화

려하고 장식적인 빗이 발달하였다.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장식빗의 일종인 슬슬전소(瑟瑟細梳)를 비롯하여 채(釵), 뒤꽂이 등은 가계의 미적 기능을 말해주는 머리 수식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고대 가계의 미적 기능은 가계를 한 여성의 미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가계를 통해 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타인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파생한 가계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궁중의 가계가 민가로 퍼져나가고, 민가의 가계가 궁중에서 유행되었으며, 특수계층의 가계가 일반 부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점은 가계가 계층을 초월한 여성의 미추구 본능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복식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신분, 계층의 구분이 가계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면서 가계가 미적 감각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분과 계층에 따라 구획되었던 한국복식에 가계는 보다 자유롭고, 개성적이며, 화려한 미가 부가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미의 부가는 정제된 전통복식에 상당한 울퉁미를 부여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남성의 관모에 상응하면서도 미적 기능에 충실하였다.

IV. 한국 고대 가계의 복식사적 의미

한국 고대 가계는 당대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당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가계와 체계의 다양한 유형으로 정착되었다. 이에 한국 고대 가계의 복식사적 의미를 격식과 의례의 상징성, 사회상을 반영한 유연성, 복식미와의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격식과 의례의 상징성

한국 가계는 기원에서부터 격식과 의례적 성격이 강하다. 왕실의 종묘와 가례, 기타 의례 등에서 가계

는 형식과 성장(盛裝)을 상징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행해졌던 복식교류에서도 가계는 왕비의 최고 하사품으로 상징적 의미를 지녔으며, 중국으로 보내졌던 조공물목에서도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품목이었다.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 중 안악3호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계는 장엄한 형태와 양식에서 시선을 압도한다. 안악3호분 여주인공이 착용하고 있는 환계형 가계는 주인공 부인의 지위에 걸맞은 최고의 가계로, 고대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가계의 양식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양식이라는 견해에서 중국양식으로 보는 시각⁴⁵⁾도 있으나, 환계를 두른 가계는 궁중 최고 두발양식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⁴⁶⁾ 격식과 의례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 고대 가계의 격식과 의례적 성격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복식교류와 조공품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성덕왕(聖德王)대에는 성덕왕 재위 36년간 무려 40여 차례의 조공사(朝貢使)를 당(唐)에 파견하였는데,⁴⁷⁾ 이러한 교류과정에서 체(髻)를 중국에 조공하였던 기록을 살필 수 있다.⁴⁸⁾

이처럼 격식을 갖추고 의례를 행할 때에는 의복과 더불어 반드시 가계를 착용하였다. 남성이 관을 착용하지 않은 머리로 외출을 삼갔던 풍속은 여성의 가계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때와 장소에 맞는 가계의 착용은 곧 격식과 의례의 상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 계속되었던 복식교류에서도 가계는 국가간 의례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써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가계가 갖는 복식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사회상을 반영한 유연성

한국 고대 가계는 어떠한 다른 복식요소보다 사회상을 잘 반영하였다. 유연성은 복식에 나타난 신분이나 계층구분과 같은 사회적 규약에 보다 자유롭고 착용대상과 범위가 폭넓게 허용된 것을 뜻하며, 시대의 사조와 기류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성의 복식은 품과 길

이, 문양과 가선(加襪) 등에서 신분구별이 명확하다. 이에 반해, 고계형 양식의 체거나 건귀 등은 모든 계층에서 착용할 수 있는 가계였다. 가계의 수식과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복식의 신분별 구분에 비해서는 미비하다. 또한 머리에 착용하는 남성의 관모가 오랫동안 의례와 신분표시의 기능을 수행한 것과는 달리 가계에서 수식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현상⁴⁹⁾이라도 볼 수 있다. 특히 복식에서 자기표현이 지극히 제한되었던데 비해 가계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연출될 수 있었고, 다채로운 수식을 더해 개성이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에 사용된 체(髻)는 색이나 소재, 형태 등 신분구별을 위한 복식의 규제요소가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흔하게 볼 수 있는 두발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누구에게나 착용 가능한 복식요소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가계는 신분을 넘어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할 수 있는 복식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고대 가계는 시대사조를 반영하는데도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특히 불교는 삼국시대 중국을 통해 유입된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주요 사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한국 고대 가계의 형성과 소멸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고대 가계는 형태와 양식에 따라 신분구조를 넘나들기도 하였고, 일부는 유행성을 갖고 여러 계층에서 착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대사조를 반영함으로써 복식이 갖는 사회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복식사 속에서 한국복식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한국 복식문화의 한 요소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3. 복식미와의 관련성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은 시대마다 성격을 달리하여 표현된다. 특히 삼국시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동적인 성격은 고구려의 복식미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바탕 위에 한국 고대 가계가 형성되었다.⁵⁰⁾

한국복식이 완성되었던 삼국시대 복식과 가계는 안정적인 미적 비례구도를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조

화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식미는 신체의 선을 나타내지 않으며 여유있는 형태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였던 한국복식의 연장선상에서 풍토와 신체의 적합성, 동양적인 정신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¹⁾

이와 같이 가계는 복식과 따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하면서 한국의 복식미에서 보이는 절제미, 복식과의 조화, 비례에 의한 선의 미, 과도한 장식이나 과격이 없는 자연미 등을 고스란히 가계에 표현하고 있다. 안악3호분 여주인공의 가계가 화려하고 웅장한 만큼 복식의 풍성함과 조화를 이루며, 건국의 간소한 양식은 이를 착용한 여성의 자연미를 살린 복식과 비례를 맞춘다. 이에 주변국인 중국에서 흔하게 살필 수 있는 전체를 해할 수 있는 과도한 가계의 축소와 확대, 복식에서 보여지는 선의 흐름과 느낌을 방해할 수 있는 과격적인 소재의 사용과 장식의 적용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인다.⁵²⁾

따라서 한국 고대 가계는 미의식에 따른 복식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복식에서 표현될 수 있는 미의식을 어떠한 복식요소 보다 다채롭게 표출시켰다. 이는 가계가 갖는 미적 기능에 바탕을 두면서 당대의 미의식을 복식미로 재구성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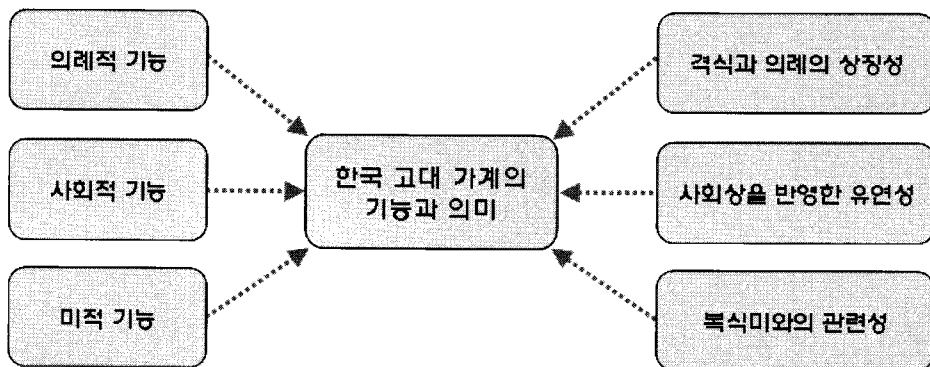
한국 고대 가계는 시대상황과 요구에 따라 복식문

화의 한 요소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당시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발전하였다.

이에 한국 가계의 기능은 의례적, 사회적, 미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 가계의 의례적 기능은 가계의 발생동기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성장과 의례를 위한 가계의 착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기능은 혼인여부 표시, 시대의 미의식 반영, 시대상과 사조를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적 기능은 여자복식이 격식과 절제, 절도와 규제를 미덕으로 여기던 전통복식에 보다 자유롭고 화려한 미적특성이 부여되면서 미의식을 발산시켰다.

이에 한국 고대 가계의 복식사적 의미를 격식과 의례의 상징성, 사회상을 반영한 유연성, 복식미와의 관련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고대 가계는 기원에서부터 격식과 의례적 성격이 짙다. 왕실의 제례, 일반인의 격식과 성장을 상징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행해졌던 복식교류에서도 가계는 왕비의 최고 하사품으로 상징적 의미를 지녔으며, 중국으로 보내졌던 조공물목에서도 빠뜨려서는 안될 중요품목이었다. 이에 격식을 갖추고 의례를 행할 때에는 의복과 더불어 반드시 가계를 착용하였고, 때와 장소에 맞는 가계의 착용은 곧 격식과 의례의 상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 계속되었던 복식교류에서도 가계는 국가간 의례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써 역할



〈그림 13〉 고대 한국가계의 기능과 의미

을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가계가 갖는 복식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둘째, 한국 가계는 신분을 뛰어 넘어 다양한 계층에서 폭넓게 착용되었다. 이는 복식에서 자기표현이 지극히 제한되었던데 비해 가계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연출될 수 있었고, 개성이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는 시대사조를 반영하는데도 유연성을 발휘하여 불교가 성행하였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상의 두발양식과 유사한 고계형 가계가 빈번하게 착용되었다. 이에 가계는 한국복식사 속에서 한국복식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한국 복식문화의 한 요소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셋째, 한국 고대 가계는 복식미와의 관계 속에서 미의식을 발전시켰다. 삼국시대에는 환계를 이용하여 가계를 확대시켰던 조형성은 소매폭이 넓고, 겹겹이 입혀진 치마의 풍성함과 조화를 이루고, 건적을 비롯한 고계형 가계는 이를 착용한 여성의 자연스런 복식미와 함께 하였다. 복식과 가계가 안정적인 미적 비례구도를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었으며, 미적 기능에 바탕을 두었고, 당대의 미의식을 복식미로 재구성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고대 가계의 의례적, 사회적, 미적 기능에 따라 가계가 갖는 복식사적 의미를 규명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복식사에서 복식의 한 부분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한국 고대 가계에 대한 검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연구를 병행해 나아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김영숙 (1988). *한국복식사사전*. 서울: 민문고, p. 35.
- 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6). *한국 한자어사전*, 4.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 953.
- 3) 김용문 (1992). 가계와 보요에 관한 연구-중국을 중심으로. *복식*, 18, p. 221.
- 4) 임린, 김은정 (2005). 한국 가계양식의 변천과정과 특성. *복식*, 55(7), p. 144.
- 5) 위의 책, pp. 144-145.
- 6) 周汎, 高春明 (1988).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 學林出版社, p. 16.

- 7) 東史綱目, 卷1, 上. 箕子朝鮮 元年. 教民編髮蓋首 君臣男女飲食居處之制 自此始爲.
- 8) 東史綱目, 卷1, 上. 箕子朝鮮 40年. 當時制作 雖無傳者...婦女之首飾說者謂 殷之遺制 其或信烈也.
- 9) 星湖僿說, 卷6. 萬物文. 髮髻. 羅濟句麗時以髮繚首 分明是殷之遺制.
- 10) 五洲衍文長箋散稿, 卷15. 東國婦女首飾辨證說. 新羅婦人美髮繚首 句麗髻髻垂右肩 百濟則分兩道 大抵相類而都只爲殷之遺制.
- 11) 晉書, 卷97. 列傳 第87. 東夷. 馬韓. 而貴纓珠 用以綴衣或飾髮垂耳.
- 12) 周汎, 高春明. *앞의 책*, p. 15.
- 13) 海東釋史, 卷第20. 禮志3. 儀物. 章服. 三韓婦人 盤髮爲飾 女子卷而垂于後 然咸作鴉髻 餘則垂之.
- 14) 周汎, 高春明. *앞의 책*, p. 36.
- 15)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3.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972.
- 1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漢韓大辭典*, 권1.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 415.
- 17) 沈從文 (1997). *中國古代服飾研究*.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 62.
- 18) 周禮, 卷8. 追師. 王后之首服 爲副編次追衡笄...玄謂副之言覆 所以覆首爲之飾 其遺象若今步搖矣服之以從 王祭祀 編編列髮爲之 其遺象若今假髻矣 服之以桑也 次次第髮短爲之 所謂髮髻 服之以見王王后之燕居.
- 19) 周汎, 高春明. *앞의 책*, p. 49.
- 20) 王宇清 (1975). *歷代婦女袍服考實*. 北京: 中國旗袍研究會·欣欣彩色製版有限公司, p. 48.
- 21) 英祖實錄, 卷70. 25年 9月(戊辰). 今之髻 卽周副編次之遺制 不可非禮.
- 22) 星湖僿說, 卷6. 萬物文. 髮髻. 周禮追師王后之首服副編次...合盛世風采宛.
- 23)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39.
- 24) 위의 책, p. 39.
- 25) 김원룡 (1980). *한국미술전집4(벽화)*. 서울: 동화출판사, p. 71.
- 26) 說文解字, 第7, 下. 巾部. 婦人首飾.
- 27) 星湖僿說, 卷6. 萬物文. 髮髻. 巾幘婦人之服 幘本作幘 卷幘也 以巾爲之 故從巾而作幘.
- 28) 釋名, 卷4. 釋首飾. 幘恢也 恢廓覆髮上也.
- 29) 周汎, 高春明. *앞의 책*, p. 49.
- 30) 조선화보사 (1986). *고구려고분벽화*. 북한소적학술총서8. 조선화보사출판부, p. 79.
- 31) 호암미술관학예연구실 (1999).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서울: 호암미술관, p. 111.
- 32)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앞의 책*, p. 212.
- 33) 釋名, 卷4. 釋首飾. 梳言其齒疏也 數言比比於疎其齒差數也 比言細相比也.
- 34) 한병삼 (1973). *한국미술전집2(고분미술)*. 서울: 동화출판사, p. 130.
- 35) Michal Sullivan (2002). *The ARTS of CHINA*. Univ of California Pr. p. 139.
- 36) 邢莉 (1995). *中國女性民俗文化*. 北京: 中國檔案出版.

- pp. 158-159.
- 37) 說文解字, 第14, 上, 新府, 釵笄屬.
 - 38)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II*.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70-272.
 - 39) 추원교 (1989). *한국여성장신구의 형성과정과 조형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9.
 - 40) 한병삼. *앞의 책*, p. 98.
 - 41) 星湖僿說, 卷6, 萬物文, 髮髻. 古者惟盛服用髮 其餘自王后至士庶 皆不然 不似今之常用 故雖不取他人髮 可以用之.
 - 42) 강순제 (1992).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9.
 - 43) 舊唐書, 卷199, 列傳, 高麗傳. 衣裳服飾 唯王五綵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及帶 咸以金飾. 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 及金銀爲飾.
 - 44) 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百濟. 辮髮垂後 已出嫁則分爲兩道 盤於頭上.
 - 45) 김용준 (1957). 안악 제3호분(하무덤)의 년대와 그 주인공에 대하여. *문화유산*, 3, p. 12.
황호근 (1976). *한국 장신구 미술연구*. 서울: 일지사, p. 90.
정미경 (1989).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허정희 (2002). *안악3호분의 주인공 복식에 관한 연구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0-35.
 - 46) 임린, 김은정. *앞의 책*, p. 149.
 - 47) 하일식 (2003). 통일신라시기의 羅唐 교류와 唐 官制의 수용. *강좌 한국고대사4*, 서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 183.
 - 48) 東國通鑑, 三國記, 文武王2年 頭髮, 海東釋史, 世紀10 新羅, 眞平王53年, 女樂二人(皆鬢髮美色). 三國史記, 新羅本紀, 聖德王 22年, 美鬢. 增補文獻備考, 朝聘1, 聖德王29年 頭髮八十兩. 海東釋史, 交聘志, 聖德王33年 頭髮百兩. 海東釋史, 交聘志, 景文王9年, 四尺五寸 頭髮百五十兩·三尺五寸 頭髮三百兩·金釵·頭五色綦帶·瑟瑟細金針筒.
 - 49) 강순제. *앞의 책*, p. 26.
 - 50) 김원룡 (1996) *한국미의 탐구*. 서울: 열화당, pp. 17-31.
 - 51) 임린, 김은정 (2007). 확대형 두발양식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조선후기와 로코코시대의 비교분석. *복식*, 57(4), p. 153.
 - 52) *위의 책*, p. 155.